

공항 이용객 절반 이상 KTX로 유출...존폐 기로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4> 호남고속철 개통

터링 비는 광주공항 대책 급하다

교통 '빅뱅'... 항공·버스 수요 급감

항공사들 운항감축계획 아직 없어

무안공항과 통합 등 논의 서둘러야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1단계(충북 오송~광주송정 구간(182.3km) 개통은 광주 교통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TX 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공항 이용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제기된 광주공항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을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애초 개통시기는 오는 3월 말이었으나 서대전역 경유 문제 등 노선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기됐다.

KTX가 예정대로 개통되면 버스·공항 등 광주 교통시장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중 항공기 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호남고속철 운행이 본격화되면 서울~광주 구간의 항공기에서 KTX로 전환율이 53.5%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 이용객 100명 중 53.5명이 항공기 대신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년 뒤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좌석 여유가 생겨 항공 수요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호남선이 개통되면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시간이 1시간33분으로 종전보다 1시간6분이 단축된다.

현재 김포~광주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이다. 이들 항공사는 김포~광주 노선에서 각각 1일 2회와 1일 5회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는 당장은 운항 감축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금호고속이 누워서 갈 수 있는 '집대형 버스'를 도입하고 KTX가 가지 않는 지

역을 위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차별화된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호고속 측은 KTX가 대동맥이라면 버스는 모세혈관으로, KTX와 겹치는 노선을 일부 정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KTX 전환율(고속버스→KTX 전환율 37.6%) 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공항이 울산공항 등 다른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안정적인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수요창출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울산공항 항공편은 KTX 개통 전후 24편→20편→16편→14편으로 준데 이어 항공기 탑승률도 81.2%(2010년 4월 기준)→53.9%(KTX 울산역 개통 이후)로 떨어졌다. 울산공항과 항공사들이 항공료 할인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할인 등으로 역전을 시도했지만 탑승률은 50%대로 내려갔다.

일각에선 지자체와 광주공항이 항공이용 총비용을 KTX 운임 대비 1.5배 수준 이하로 줄이고 공항 접근체계를 개선해 비용과 시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광주-김포 항공노선을 광주-인천 간 정기 직항노선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시

급하다. 더불어 광주·전남 시도의 최대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 통합문제, 광주 공군항 이전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KTX 개통으로 광주공항의 승객 급감해 운영난이 현실화되는 만큼 중단기 대안 마련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민간공항 단일화와 공군항 이전문제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의원들과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은 2일 전남·전북 광역·기초의원 250여명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광주시의회 제공>

항의 방문·상경투쟁·서명운동...거세지는 'KTX 서대전 경유' 반발

호남권 단체장 오늘 장관 면담

지역정치권 서울청사 앞 반대집회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과 관련해 호남지역 정치권이 대정부 상경 투쟁에 나서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 지사와 충북 정무부지사는 3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과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 주승용 의원

(여수) 등 지역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북 도의회 등 호남권 의원 250여명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 경유 반대' 상경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항의서한과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의원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서대전역 경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KTX 운영편수 전체를 애초 노선대로 운행해 고속철도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에서도 서대전역 경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과 박경철 익산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김양원 군산 부시장, 양삼복 정읍 부시장 등은 이날 익산역에 모여 '호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원안 노선인 오송~남광주~익산 노선 운행 방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5개 자치단체는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거치면 운행시간이 45분 지연돼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된다. 호남과 수도권을 신속하게 연결하려면 호남고속철의 목적과 건설 취지에도 역행한다"면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탄소밸리, 관광 등 전북도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반대 100만 명대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여수국가산단광장협의회와 여수중소기업협의회, (사)여수경영인협회, (사)여수건설업협회의,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전남관광협회여수지부, 여수관광발전협의회도 이날 공동으로 청와대 및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지역 국회의원에게 '서대전 KTX의 서대전 경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인력 2배로 늘려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선관위, 감시체계 대폭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단속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 매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혼탁·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관위가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그동안 가동해 온 '공정선거지원단'을 1일부터 당초 10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확대해 '돈 선거' 등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의 규모를 2000여명으로 2배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선거는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마을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많은 조합원을 직접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선거의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 전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조합원 접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원을 만나 제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선관위는 출마한 후보자들이 서로 감시하는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단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간에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조직적 돈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수사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신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각급 선관위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각 지역의 모험행사를 찾아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중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휴무휴)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광산구 월계동 첨단C(여의 1층)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수원동 196 우리빌에이커리2층	062)955-5230
세정투어 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설날 연휴 마카오 전세기

항공 에이 마카오 (NX 항공)
출발일 2월 19일 (목), 2월 22일 (일)
일 정 2박 4일 일정

출발시간 09:00 마카오/홍콩 4일 총상품가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박항공료 포함 소요 관광+피크닉 호텔 4성급 호텔 2개 식사: 마카오 세사면 레스토랑 / 세브로 레스토랑 포함 복: 2일 용의복(2인1실)	출발시간 09:00 마카오/심천/홍콩 4일 총상품가 1,170,000원~ 유류할증료 71,000원 포함 선박항공료 포함 소요 관광+피크닉+심천 호텔 4성급 호텔 2개 식사: 마카오 세사면 레스토랑 / 세브로 레스토랑 포함 복: 3일 용의복(2인1실)
---	---

하나TV쇼핑
하나TV쇼핑 이태리 & 발리니온 공통특전

이태리 VS 발리

로마 vs 피렌체 vs 베니스
3도시 중 한 곳을 선택 스냅촬영!

이태리(로마·피렌체·베니스) 5박7일
총상품가 2,456,800원~
편지봉투 > 가이드 > 기사봉투 포함
선착 경비 있음 ●출발일: 2월~

발리 4박6일 - 포시즌 풀빌라
총상품가 2,047,900원~
편지봉투 > 가이드 > 기사봉투 포함
선착 경비 있음 ●출발일: 2월~

① 8만원 상당의 아르헨 액자 제공
② 선착처의 역 근처 분식 1박 제공
③ 와인 병 제공

① 총 4번의 스카 or 마사지 포함
② 1인당 10만원 상당의 코스메틱 용품(4인1실) 4종 1박 제공
③ 2인식 핸드케이지 2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여행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 내역 및 금액,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상품 가격표에는 유류할증료, 공항료, 전세비,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약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행정보, 현지관광안내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포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료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의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관광이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4인 1실)에 여행일정에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출 2급출발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신/불만접수 T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